“전북 수산인 하나로 뭉치자”

한마음대회 개최 1300여명 참석 해양수산업 발전 화합 위해

해양환경 변화, 어획량 감소,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제9회 전북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28일,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도내 수산인들의 위상확립,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을 위하여 개최하는 수산인 한마음 대회는 올해 9회째로 군산, 김제, 고창, 부안 수협이 주최하고,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며, 도내 연안 시군별로 순회 개최, 2015년 지난 고창군 대회에 이어 올해 군산시에서 개최하게 됐다.

2008년부터 시작된 수산인 한마음대회는 그 동안 어업인들의 참여가 미흡하여 수협위주의 행사였으나, 올해부터는 수협뿐 아니라 수산업 경영인, 자율관리공동체, 수산산업연합회, 내수면 양식협회, 유관 기관, 단체 등 도내 모든 수산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수협과 어촌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자율관리공동체, 내수면 생산자협회 및 해양수산 기관, 단체, 어업인 등 1,300여명이 참석, 해양수산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함께하고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한 화합의 시간을 나눴다.

특히, 대회에 참석하는 송하진 도지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2017년 도정 핵심프로젝트인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와 삼락농정의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해양수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수산기자재 홍보부스 운영, 특산품 전시 판매, 시식코너 운영, 퓨전공연, 어업인 및 기관의 표창 수여,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수산업 도전 골든벨,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악수하는 강경화-매티스 미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환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도, 내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3곳 선정

전주시 나눔숲 조성 등 국비 7억1000만원 지원

전북도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한 ‘2018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7억1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전주시 1개소(150백만원)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완주군·고창군 2개소(5억6000만원) 이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숲과 쉼터를 조성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액 녹색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지로 전주시 우리요양원이 선정되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숲을 거닐 수 있도록 목재데크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지로 완주군청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이 공모에 선정되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녹색자금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수익금을 배분받아 조성된 자금으로,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환경 기능 증진자금이다.

전북도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접수한 사업제안서를 외부 심사위원들과 심사를 거쳐 6개소(복지시설나눔숲 4개소, 무장애 나눔길 2개소)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모 신청했다.

이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들과 현장 심사와 서류심사를 하였으며, 최종 심사에서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 1개소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2개소 총 3개소를 녹색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북도 신현승 환경녹지국장은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쉼터와 산책 공간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녹색자금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장애인콜택시, 방만한 운영 행정기관 관리 감독은 허술”

특별교통수단 운행여건 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설 촉구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 더불어 민주당·사진)이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여건을 개선하고 운영수탁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설을 촉구했다.

한완수 도의원은 “전북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평균 100%이상 도입했지만, 그 이용률은 전국 10개 시도 중 9위로 하위권”이라며, “그 이유가 평일야간, 주말은 운행을 하지 않는 시군이 대부분이고, 요금 또한 관내,관외에 시내, 시외버스요금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군별로 몇 배씩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에 따르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대부분 위탁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같은 법정대수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간에도 운행거리와 운행횟수가 4배 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는 등 방만한 운영을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관리나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도 휠체어 비이용자가 무려 38.8%에 달해 실제로 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하는 1,2급 휠체어이용 장애인들이 필요한 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군지역인 순창군의 경우 연간 이용자의 66%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이용률은 3%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개설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 8개 광역도 중 충북, 충남, 전북을 제외한 5개 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센터를 통해 시군간 운행여건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위탁기관의 운영 효율화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개설 필요성을 타진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위탁기관의 운영 효율화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GPS를 활용한 차량관제시스템 및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시군에 적극 장려하는 등 원활한 운행을 위해 행정차원의 원칙을 세워 더 이상 도내 교통약자들이 이용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완수 의원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원칙 등을 담아 오는 11월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국 농공단지 기업대표 ‘전북’ 집합

부안 모항해나루 호텔서 1박2일간 ‘도약의 날’ 행사

한국농공단지연합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제6회 전국농공단지 도약의 날’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부안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농공단지 도약의 날에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비롯한 지자체와 전국에 입주한 농공단지 기업대표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농공단지 우수기업인에 대한 유공자 시상,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인 결의대회가 진행, ‘농공단지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제언’을 주제로 한 정성찬 변리사의 특강과 국내 최초의 ‘친환경유기식품 클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농공단지 특성화 사례, 전남 완도군의 근로자 복지관 설립에 관한 사례 발표 등이 있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도약의 날에는 전라북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며,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농공단지 內 알뜰장터’도 운영하는 한편, ‘지역일꾼 1명 더 채용하기’ 선포식을 통해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에 동참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입주기업과 함께 노력하는 결의대회를 가져 농공단지 도약의 날 의의를 더했다.

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의견을 공유하는 장인만큼, 농공단지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입주기업이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농식품부 2018년 공모사업에 익산 팜조아 선정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익산 소재 ㈜팜조아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팜조아는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대형급속냉동시설을 갖춘 업체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10억원(국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을 확보하여 개별냉동시설(IQF)을 구축하게 된다.

팜조아는 확보되는 시설을 통해 2018년 ~ 2022년까지 도내 베리류 및 채소류 등 6,100톤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어서 농가소득 증진 및 판로확보 등이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삼락농정의 제값받는 농업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